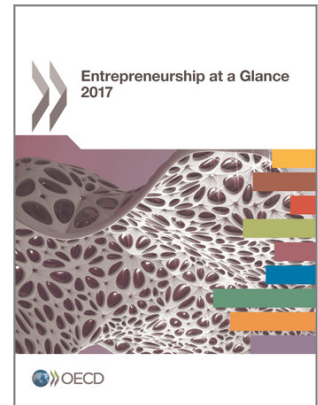




Read the full book on: [10.1787/entrepreneur_aag-2017-en](https://doi.org/10.1787/entrepreneur_aag-2017-en)

2017 년 기업부문 개요

한국어 개요

관련 자료가 있는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신생기업의 설립 건수가 계속 회복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에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이는 모든 기업금리의 지속적 하락세가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도산율의 개선 추세는 기업환경이 호전되고 있는 징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2016 년 말에 기업도산의 건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위기 수준이나 그 미만으로 회복되었다. 기업도산 수준이 2007 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 특히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에서조차도 2017 년 초에는 그 추세가 개선되기 시작되었다.

기업 설립을 가장 크게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부문

모든 OECD 국가의 기업 설립비율은 산업 부문보다는 서비스 부문에서 높았고, 2014 년 기준으로 서비스부문의 신생기업이 모든 일자리 창출의 2/3 에 기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에서 산업부문 신생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의 기여도는 15% 미만이었다. 게다가, 2008 년과 2014 년 사이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두 국가(룩셈부르크와 독일)를 제외한 OECD 모든 국가에서 하락했다.

많은 국가에서 고용률도 역시 회복되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신생기업 및 기존기업 모두 포함)이 고용증가를 이끄는 주된 동인이었다. 제조업 부문 내에서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던 유통회권 지역의 대기업에서 그 고용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서비스부문의 대기업이 금융위기 이후의 고용률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차이는 국가별 및 부문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산성 격차는 제조업 부문보다는 서비스 부문에서 매우 작다. 생산성 격차가 클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대기업은 중견기업의 50% 이상, 소기업이나 초소기업의 두 배 이상의 임금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부문 활동이 성장하면 전체 경제에서 임금 분포도의 크기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이 서비스 부문의 스타트업에 참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활동이 커지는 것이 성별 불평등을 감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지난 10 년 이상 동안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자영업 비율의 격차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 OECD 국가의 경우 고용된 여성 10 명 중 1 명이 자영업에 종사하여 남성의 자영업 비중(17%)의 거의 절반에 불과했다.

다수의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의 임금 격차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은 대기업보다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벨기에, 체코, 독일, 라트비아, 슬로바키아에서는 기존의 생산성 격차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2008 년에서 2014 년 동안에 모든 OECD 동유럽 국가(폴란드 제외), 발트 국가, 노르웨이, 영국의 제조업 부문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

초소기업에 새로운 기업활동 경로를 제공하고 신시장을 개척시키는 디지털 도구

적절한 디지털 도구 및 플랫폼의 발전은 초소기업(micro-enterprise)이 이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외국시장에 접근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OECD-세계은행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월별로 공동 조사하는 ‘퓨처 오브 비즈니스 조사(Future of Business Survey)’에 따르면 “1 인(just me)” 기업(즉, 피고용인이 없는 자영업)도 회사 규모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주된 사업활동에 수출이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출 기업의 약 2/3 가 해외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 도구에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거의 절반(45%)은 해외 판매량의 75% 이상을 온라인 도구에 의존한다고 보고했다.

‘퓨처 오브 비즈니스 조사’의 가장 최근 데이터에도 국제무역을 하는 기업이 사업의 현재 상태와 미래 전망에 더욱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 전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무역을 하는 “1 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 조사에서는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비하여 자신의 사업 상태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초소기업(micro-enterprises)이 당면하는 법규준수, 자금조달 확보, 숙련 피고용인의 채용 및 유지, 비즈니스 파트너 모색 등의 어려움을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긱(gig) 노동자의 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화된 추세는 비상근으로 일하는 자영업자의 수의 증가이다. 비상근 자영업자는 지난 10 년 동안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긱 경제(gig economy)”의 부상으로 마련된 새로운 기회, 즉 상근 직업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유연한 고용형태라는 현상의 증가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긱(gig) 활동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항상 이러한 방식에 계속 의존해 왔음), 오늘날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이러한 방식이 제공/요구되고 있으며, 이전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긱(gig) 노동자의 부상은 기업주의(entrepreneurialism)의 크기의 측정에 있어서 자영업 비율/수준을 그 대용물로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긱(gig) 경제와 기업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 사이의 연관성에 결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긱(gig) 경제 참여자는 소규모의 기업가일 수도 있지만, 긱(gig) 노동자로서 전형적인 피고용인과 매우 유사한 조건으로 기업 활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가지지 않고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긱(gig) 활동이 제공하는 유연성은 전형적인 봉급 고용과는 정반대로서 이제 막 시작한 기업가들이 생활비를 조달하면서 자신의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측정의 어려움은 긱(gig) 노동자의 기업주의(entrepreneurialism)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에 존재하게 된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긱(gig) 경제는 때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긱(gig) 경제 플랫폼이 질 높은 기업활동을 보완하기 보다는 질 낮은 기업활동의 대체제로 작동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측정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이 분야의 자료 가용성의 향상 방식을 모색하는 것으로 본 발행호 내용의 추가물로 기업활동의 측정 데이터 개선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노력에는 신규기업에 대해 소유권과 거래 상태 및 글로벌 가치망에 따른 분류(profiling), 성별과 관련된 개선된 자료의 개발 및 더욱 일반적으로는 기업활동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통계학적 함정 및 유의점 관련 사항을 들 수 있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7),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doi: 10.1787/entrepreneur_aag-2017-en